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201.600.1247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이사 60, 1-6

화답송

(후렴) 주 - 님, 세 - 상 모 - 든 민족들 이 당신을 경 배 하리 이 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았음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흡수를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에페 3,2,3ㄴ.5-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 2,1-12

성가

입당성가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봉헌성가 **487** 동방의 세 박사
 성체성가 **110** 경사롭다
 파견성가 **101**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미사 봉헌

연미사

김학순
 윤기성 모니카, 황현상, 이재영, 차덕순
 이정진 안토니오
 한주천 모니카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
 한시찬 라파엘
 정현술

봉헌

박혜화
 이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네스
 김승현마리아, 김민규요셉
 익명
 가족
 윤루시아

생미사

유데이빗, 유데니엘, 유케이디
 김재연 스테파노, 박효순 마틸다
 김유화 데레사, 이명숙 루시아
 이영애레지나, 이지훈아네스, 정다경마리아영명축하
 이지훈 아네스 생일축하
 이지연 안나레지나 영육간의 건강
 이지연 안나레지나 생일축하
 이지연 안나레지나
 정영시스테파노, 박영순아가다 건강
 김루크, 김동나
 김규현 프란치스코
 정다경 마리아
 채봉석, 채미재
 김가롤로 신부
 이경자 율리아나
 류유미 마태아
 이홍규 요한, 이로잔 캐더린
 김효주 수녀
 박연희
 주현경, 임금종
 큰집, 원조

봉헌

유희순 그레이스
 김승현마리아, 김민규요셉
 한서희 데레사
 이지연 안나레지나
 이지연 안나레지나
 김보현 엘리사벳
 이영애 레지나
 익명
 정다경 마리아
 노사비나
 익명
 익명
 익명
 박순 로사
 김영희 클라라
 김영희 클라라
 이미숙 안나
 박순 로사
 박순 로사
 익명
 조미카엘, 조데레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1월 8일	이아네스	백안드레아	김안나	김안나	양마리아	김마리아	김요셉
1월 15일	조마르티나	송대건안드레아	정콘솔시아	정콘솔시아	이안젤라	양글라라	최사도요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 1월 영명일 맞으시는 교우분들! 축하드려요~ '▽'

- 1.1 성모마리아 축일 1.2 바실리오, 그레고리오
- 1.4 엘리사벳시튼 1.5 신클레티카 1.15 마오로
- 1.17 안토니오 1.20 파비아노, 세바스티아노
- 1.21 아네스 1.24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1.26 티모테오, 티토 1.27 안젤라
- 1.28 토마스아퀴나스 1.31 요한보스코

▶ 오늘 미사후 친교실 모임 없습니다.

▶ 오늘 사목협의회 10시 30분 Conf. Rm(2F)

▶ 오늘 연령회 모임 아래성당 연도 RIP이정진 안토니오

▶ 고해성사 없습니다. 1월 22일까지

▶ 설 합동 위령 미사 신청

미사 : 1월 22일(주일), 09시 15분
 신청 : 미사 후 성당문 앞-연령회 담당자
 마감 : 1월 15일(주일)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2023년 성지 순례단 모집-이태리 로마, 아씨시

출발: 2023년 6/18(일)저녁- 도착: 6/23(금)오후
 신청마감: 1월10일까지 예약금: \$1500 나머지 출발 30일 전 완불
 순례경비: \$2600, 모든 신자와 가족들 참석 가능
 주최: 맨하탄성당 울뜨레아, 신청: 미사후 성당문 앞
 문의: 김미화 클레어 917-485-0530
 *코비드이후 항공 변동으로 인해 신속한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복사단 모집

미사 집전하시는 신부님을 도와 성실히 봉사할 신심 깊고 책임감 있는 청년은 신부님께 신청 바랍니다.

▶ 유아세례 신청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09:15) *신청: 사무실



“주님, 베네딕토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2022년 12월 31일 선종 -



▶ 청년회 새신자 등록

문의: 청년회장 양정운 줌마 카톡 ID:Jcy258



Email:Jclara.yang@gmail.com

또는 청년회 신자등록 큐알 코드에 접속후 등록. 새 청년신자 들은 ▶큐알 코드로 신자등록을 하시어 본당 행사와 청년 단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년미사 1/14(2번째 토) 18시 아래성당

▶ 2023년 주일학교 청년 교사 모집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청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격: 세례받은 청년, 문의: 효주 수녀 347-834-5784

▶ 사용하신 주보는 집으로 가져갑니다

본당 소식지 주보는 가지고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본인이 보신 주보는 반드시 가지고 나가십시오.

▶ 미사전 일찍 도착 미사에 09시까지 성당에 도착합니다.

옆 사람과 잡담하지 않으시고 해설자와 함께 성경봉독하며, 주님을 뵈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새해 첫 기적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굴뚝이는 굴렀는데
 한 날 한 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앓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반 철환

날고, 뛰고, 걷고, 기고, 굴러와 보니, 누구는 앓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나도 도착했고, 당신도 도착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새해를 맞으니, 기적 같은 일이다.

각자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에게 알맞은 걸음으로
 기적의 2023년 한 해를 다시 시작해보자.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 아가다, 이경희 미카엘라,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단체 모임

예비신자교리반	매주 주일 11:00	3A
우리즐거움의원천 Pr.	매주 주일 10:30	2D
구세주의모후 Pr.	매주 주일 08:00	Rm(2F)
하늘처럼성가대	매주 주일 08:30-13:30	3B
청년회	매주 주일 10:30	2A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 17:00	Rm(2F)
신명풍물패	2,4 주일 14:00	3A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Rm(2F)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2E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	-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수성분당 주임 | 신현욱 루카 신부

오늘 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그 ‘별’은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당신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신기한 자연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 또한 오늘날 우리처럼 그저 먹고사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 놀라운 표징 앞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위대한 분의 탄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느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 표징의 의미를 잘 깨달았습니다. 그 ‘별’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고 그것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 그분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일들과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의 표징을 찾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일상의 일들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속에,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느님의 표징과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때로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그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갈망들, 인생의 허무함과 영혼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계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삶의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 인생에 깨달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모든 일이 우연이고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는 인생에는 감동도 변화도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많은 표징들을 통해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성탄 시기가 되기를 빕니다. 아멘. 